

기혼여성의 우울감과 가족가치관과의 관련성 연구: 제4차 여성가족패널조사(2012) 자료분석

박소진¹ · 김노을² · 임승지³ · 김지만⁴ · 정우진⁵

¹한국노바티스, ²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³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⁵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과

Association of Family Values with Depressive Mood in Korean Married Women: The 4th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Panel

Sojin Park¹, Roel Kim², Seungji Lim³, Jiman Kim⁴, Woojin Chung⁵

¹Novartis Korea, Seoul; ²Labor Welfare Research Institut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Seoul; ³Health Insurance Policy Institut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onju; ⁴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Research Institut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Wonju; ⁵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Korea

Background: Family values of a married woman may be related to her own depressive mood. Since depressive mood of a married woman is likely to exert a negative influence, in terms of mental health, on her, her family members, and the whole society's, it may be very important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values in married women and their depressive mood.

Methods: In this study, we analyzed nationally representative 5,818 married women aged 20 years or older from the 4th panel data of 2012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As for variables of interest, we constructed three family values variables: family-oriented view of marriage, individualistic view of marriage, and traditional view of marital roles. Then we employe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values and depressive mood, adjusting for family and socio-demographic factors.

Results: In total, 804 married women (18.4%) had experienced depressive mood. All of the three family values variables were significant in their relationships with depressive mood. The women categorized as 'very weak' in family-oriented view of marriage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depressive mood than the women categorized as 'very strong' (odds ratio [OR], 1.98; 95% confidence interval [CI], 1.53-2.55). By contrast, the women categorized as 'very weak' in individualistic view of marriage (OR, 0.43; 95% CI, 0.33-0.55) and in traditional view of marital roles (OR, 0.68; 95% CI, 0.51-0.92) were less likely to experience depressive mood than their respective counterpart women categorized as 'very strong'.

Conclusion: In Korea, married women's values towards marriage itself and roles between wives and husbands had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their depressive mood. This suggests that in order to improve mental health in married women, we need to take social and cultural dimensions into consideration along with public health interventions.

Keywords: Depression; Family values; Married women;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orea

서론

우리나라는 11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차지

하고 있을 만큼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특히 자살의 주된 원인이 우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우울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2]. 우울은 일생동안 누구나 느낄 수 있

Correspondence to: Woojin Chung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50-1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Tel: +82-2-2228-1522, Fax: +82-2-392-7734, E-mail: wchung@yuhs.ac
Received: April 6, 2018 / **Revised:** April 27, 2018 / **Accepted after revision:** June 1, 2018

©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는 감정이지만, 증상이 나타날 때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우울증이 되고 더욱 악화될 수 있다[3]. 평생 유병률로 볼 때 남성은 3.0%, 여성은 6.9%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우울장애 유병률이 높는데[4], 이는 여성은 출산과 생리, 갱년기에 따른 급격한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 가사노동과 이에 따른 자발적, 강압적 노동시장 퇴출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전 생애에 걸쳐 경험하기 때문이다[5]. 이 중 특히 기혼여성의 우울증에 의한 정신건강 문제가 미혼남성이나 미혼여성, 기혼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기혼여성의 우울은 단순히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가정의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고, 이것이 다시 기혼여성 당사자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회복 가능성을 낮추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7]. 따라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전반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기혼여성의 우울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논의가 학계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우울증 관련 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우울증상은 자녀출산과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 직장과 가정에서의 이중역할에 따른 부담, 남편과 자녀를 포함한 대인관계 내에서의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한국복지패널을 분석한 연구에서 인구사회적 특성, 가족관계, 사회관계 등을 구분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 교육수준, 가구형태, 소득수준,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가족 및 사회관계 만족도에 따라 기혼여성의 우울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5,6,9].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활용한 우울과 관련된 연구는 인구사회적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 특성을 통제하고 가족적 지지가 우울증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결혼 행복감이 증가할수록,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증지수는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10-12].

한편, 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가치관과 우울을 포함한 정신건강 수준의 관계를 분석한 유일한 연구에서는 여성이 현대적 가족가치관을 지닐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13]. 이 외에도 여성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직장과 가정생활의 상호전이(work-family spillovers)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14] 효의식과 성역할이 중년기 남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가[15] 있으나 연구대상이 직장 여성, 중년 여성으로 제한되어 있다. 우울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함이 증명된 것을 고려할 때[16-19], 여성의 생활을 둘러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중요한 심리특성 요인으로서 우울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가족가치관이 우울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로 확인이 된 만큼[13], 직장 여성뿐 아니라 전업주부를 포함한 모든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제4차 여

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2012년 자료를 활용하여 기혼여성의 가족가치관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가족가치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기혼여성으로 우울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제4차 여성가족패널조사(2012)에서 분석된 변수 중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여성가족패널에서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은 결혼과 자녀, 이혼, 결혼에 비한 자아성취의 중요성 등, 결혼에 대한 포괄적인 태도를 측정한 결혼관과 가족 내에서의 성역할, 즉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였다. 성역할 태도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적절할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의 태도로, 가치, 특성의 기대로 정의되는데[20], 여성의 성역할 사회화 과정은 다양한 부적응적인 특성을 수반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우울을 초래할 수 있다[21]. 본 연구에서는 가치관 요인 측정문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주의적 결혼관, 개인주의적 결혼관, 전통적 부부역할관으로 구분하여 가족가치관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가정 요인과 인구사회적 요인을 단계적으로 통제하여 가족가치관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 기혼여성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과 정책이 보다 광범위한 요인을 고려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Figure 1).

2.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여성가족패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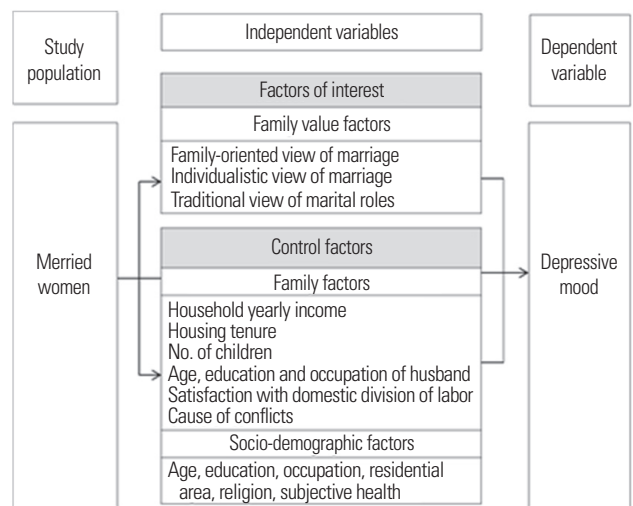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design frame.

제4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은 1차와 2차 표본조사단 위 추출을 통해 최종적으로 9,068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 여성 9,997명을 패널로 구축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가족, 일, 일상생활의 3가지 주요영역을 바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가족실태, 가족가치관, 건강 등에 관해 조사하며 여성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CES-D)의 축약본인 CES-D10 문항이 포함된 제4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자료는 제4차 조사의 가구용, 여성개인용, 일자리용 자료를 가구식별번호에 따라 결합하였다. 연구대상자인 기혼여성을 구분하기 위해 4차 조사에서 응답을 완료한 대상자(7,658명)에서 미혼여성 및 남편과 이혼, 별거, 사별상태인 여성을 제외한 기혼여성이면서 독립변수에 결측이 없는 5,943명을 추출하였다. 이 중 가정 요인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가구 내에 아동이 있으나 아동과의 관계가 어머니가 아닌 할머니 또는 친인척인 경우(125명)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5,818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변수의 선정 및 정의

선행연구에서 여성의 우울과 관련된 요인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는 변수를 제4차 여성가족패널조사(2012년) 자료에서 선정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활용한 우울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인구사회적 요인, 남편을 포함한 가족의 사회적 지지 요인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으며[10-12], 직장기혼여성의 우울을 포함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요인으로 가족가치관 성향과 성역할태도를 포함하기도 하였다[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장기혼여성과 전업주부를 모두 포함한 기혼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간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를 참고하여, 기혼여성의 가족가치관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종속변수, 주요관심변수, 통제변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종속변수: 우울지수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4차 여성가족패널의 우울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는 CES-D의 축약본인 CES-D10으로, 1977년 Randolf가 개발하고 이후 한국판으로 개발되어 우울을 측정하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다[22]. 문항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 동안 느끼고 행동한 것과 관련하여 ‘매우 그렇다’ 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4점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항은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짐, (2) 정신을 집중하기 어려움, (3) 우울했음, (4)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짐, (5) 비교적 잘 지냄, (6) 두려움을 느낌, (7) 잠을 잘 이루지 못함, (8) 큰 불만 없이 생활했음, (9) 외로움을 느낌, (10)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음과 같다. 이 중 질문의 방향성

이 다른 5번 항목과 8번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역코딩하여 총점을 합산하였으며, 총점은 10점부터 4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총점에서 우울과 비우울을 가르는 절단점(cut-off point)에 대해 21점에서 25점 사이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22,23]. 지역사회 역학연구의 일차선별을 위한 우울과 비우울의 절단점으로 24점을 권하는 선행연구가 있으며[24], 고령화패널을 활용한 연구에서 CES-D10의 절단점을 24점으로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우울과 비우울을 가르는 절단점으로 24점을 사용하였다.

2) 주요 관심변수(factors of interest): 가족가치관 요인

가족가치관 요인은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 여성의 가족 관련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여 각 문항의 특성에 따라 가족주의적 결혼관, 개인주의적 결혼관, 전통적 부부역할관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가족주의적 결혼관은 결혼과 가족을 중요시하는 관념에 대한 기혼여성의 태도를 측정한 것으로, 5가지 문항의 총점을 합산하여 사분위수로 나누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 가치관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문항으로는 (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함, (2) 결혼은 집안배경이 비슷한 사람과 해야 함, (3) 결혼은 일찍 하는 것이 좋음, (4)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음, (5)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함과 같다.

개인주의적 결혼관은 결혼은 선택사항으로, 혼외 관계, 동거, 혼외 자녀, 결혼에 비한 자아성취의 중요성, 이혼, 성적만족의 중요성, 남편 이외의 이성친구의 필요성 등에 대한 기혼여성의 태도를 측정한 것으로 9가지 문항의 총점을 합산하여 사분위수로 나누었다. 점수가 낮을수록 개인주의적 결혼관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연속형 변수가 아닌 4분위로 나누어 범주형 변수로 한 이유는 우울감과의 관련성이 범주 간에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부부역할관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여성가족패널에서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총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으로는 (1)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2)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3)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4)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고 구성된다. 문항의 방향성이 반대방향인 2번, 4번 항목을 역코딩하여 총점을 합산하였으며, 총점이 낮을수록 전통적 부부역할관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3) 통제변수(control factors)

(1) 가정 요인

가정 요인(family factors)에서 1년간 가구총소득은 가구 균등화 소득 산정방법을 사용하여 4개 범주를 적용하였으며, 연간 소득

Table 1.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ir categories

Characteristic	Category
Family value factors	
Family-oriented view of marriage	Very strong, strong, weak, very weak
Individualistic view of marriage	Very strong, strong, weak, very weak
Traditional view of marital roles	Very strong, strong, weak, very weak
Family factors	
Household yearly income (10,000 Korean won)*	≤ 1,385, 1,385–2,000, 2,000–2,886, ≥ 2,886
Housing tenure	One's own, deposit, monthly rent
No. of children	None, ≥ one preschooler, ≥ one elementary, middle, highschool student, ≥ one adult, preschooler+elementary, middle, highschool students, elementary, middle, highschool students+adult
Husband age (yr)	≤ 30's, 40's, 50's, ≥ 60's
Husband education	≤ Middle school, highschool, ≥ college
Husband occupation	No job, white collar jobs, blue collar jobs, agriculture, fishing and forestry jobs, simple labour
Satisfaction with domestic division of labour	Satisfied, neutral, non-satisfied
Cause of conflicts	Never, financial problem, education, relationship with parents, work and personal life, division of house labor
Socio-demographic factors	
Age (yr)	≤ 30's, 40's, 50's, ≥ 60's
Education	≤ Middle school, highschool, ≥ college
Occupation	No job, white collar jobs, blue collar jobs, agriculture, fishing and forestry jobs, simple labour
Residential area	Seoul, major city, small/medium city, rural area
Religion	None, Protestantism, Catholicism, (One) Buddhism
Subjective health	Good, normal, poor

*Defined as yearly household income/square root of number of person in household.

1,386만 원 미만, 1,386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상 2,886만 원 미만, 2,886만 원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주거 점유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및 기타로 구분하였다. 자녀 수는 자녀의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자녀 없음, 미취학 자녀 1명 이상, 초중고 자녀 1명 이상, 성인 자녀 1명 이상, 미취학 자녀 1명 이상+초중고 자녀 1명 이상, 초중고 자녀 1명 이상+성인 자녀 1명 이상, 총 6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남편 연령은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남편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남편 직종은 '무직,'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단순노무 종사자/군인'으로 분류하였다. 가사노동분담만족은 만족, 보통, 불만족의 3개의 그룹으로 범주화하였다. 갈등상황원인은 조사 시점으로 지난 한 달 동안 부부 간 말다툼 등,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일의 응답으로 '해당 없음,' '경제적인 문제,' '육아와 자녀교육문제,'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과의 관계,' '본인 또는 남편의 직장생활/친구관계/생활습관,' '부부 간 가사분담'의 6개의 그룹으로 범주화하였다.

(2) 인구사회적 요인

인구사회적 요인에서 기혼여성의 연령은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으로 나누었다. 직종은 남편직종과 동일한 범주로 나누었다. 거주지역은 국가통계포털 기준으로 지역코드에 따라 서울시, 대도시(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중소도시(도의 시), 농어촌(도의 구)으로 범주화하였다. 종교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와 원불교, 종교 없음으로 4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건강은 좋음(매우 좋음/대체로 좋음), 보

통, 나쁨(조금 나쁨/매우 나쁨)으로 총 3개의 그룹으로 범주화하였다(Table 1).

4. 분석방법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가치관 요인, 가정 요인, 인구사회적 요인에 대하여 기술 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둘째, 단변수분석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chi-square 검정을 실시하였고, p값을 제시하였다.

셋째, 우울감 관련 요인에 대한 다변수분석을 위해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에서는 주요 관심변수인 가족가치관 요인을 포함하였고, 모델 2에서는 가정 요인을, 모델 3에서는 인구사회적 요인을 추가하면서 단계별로 통제하였다. 이를 통해 각 모델에서 추가된 변수요인에 따라 가족가치관 요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해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연령(5.7)과 남편의 연령(5.6)을 제외하고 모두 5 미만이었다.

분석결과는 각 단계별 교차비(odds ratio)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산출하였다. 자료의 통계분석은 SAS ver.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각 모델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통계량을 분석하였다. c통계량 값은 모델 1의 경우 58.2%, 모델 2는 73.5%, 모델 3은 77.7%로 확인되었다.

결 과

1. 연구대상 기혼여성의 일반적 특성

제4차 여성가족패널(2012) 중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최종연구대상자는 총 5,818명이었다. 우울을 경험한 기혼여성은 804명으로 연구대상의 13.8%를 차지하였다.

학력 분포는 고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 순이었고, 직종 분포는 '전업주부'가 46.8%, '서비스/판매종사자', '관리자/전문가/사무종사자', '농임어업 숙련종사자', '관리자/전문가/사무종사자', '농임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단순노무 종사자' 순이었다. 거주 지역 분포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서울 순이었고, 종교는 종교 없음(41.8%), 불교(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순이었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좋음이 53%, 보통이 33.8%, 나쁨이 13.0%였다. 주거 점유형태는 자가(75.4%)가 가장 많았다. 남편 연령은 40대가, 남편 학력은 대졸 이상(41.4%)이 가장 많았다. 가사노동분담만족은 보통(41.9%)이 가장 많았으며, 만족(34.6%), 불만족(23.6%) 순이었다. 갈등상황원인으로는 '해당 없음'이 가장 많았으며, 갈등상황을 경험한 그룹에서는 '본인 또는 남편의 직장생활/친구관계/생활습관', '경제적인 문제', '육아/자녀교육 문제', '시부모님/친정부모님과의 관계', '부부 간 가사분담' 순이었다. 가족가치관 요인 변수로 가족주의적 결혼관은 약하다, 가장 약하다, 가장 강하다, 강하다 순이었고 개인주의적 결혼관은 가장 약하다, 강하다, 약하다, 가장 강하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통적 부부역할관은 가장 약하다(41.1%)가 가장 많았고, 약하다, 강하다, 가장 강하다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Table 2).

2. 연구대상 기혼여성의 일반적 특성과 우울 여부 차이

각 독립변수에 따른 우울 경험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가족가치관 요인에서 가족주의적 결혼관이 약할수록, 개인주의적 결혼관이 강할수록 우울 경험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1$). 이는 여성의 결혼관이 전통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성향이 약할수록 우울 경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와 반대로 부부역할관의 전통적 성향이 강한 여성일수록 우울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98$).

기혼여성의 가정 요인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1년간 가구총소득이 낮을수록, 남편 연령은 높을수록, 남편 학력은 낮을수록, 남편이 무직이거나 '기능원/장치기계/단순노무 종사자/군인'인 경우, 가사노동분담 관련 만족하지 않은 경우, 우울의 경험이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1$). 자녀 수는 자녀가 있을 경우, 연령이 어릴수록 우울의 경험이 낮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1$). 갈등상황원인은 '해당 없음' 그룹이 우울의 경험이 가장 낮고(10.6%), '경제적인 문제'가 32.5%, '시부모님/친정부모님과

의 관계'가 32.1%로 우울 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1$).

인구사회적 요인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은 낮을수록 우울의 경험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1$). 직종은 '기능원/장치기계/단순노무 종사자' 그룹이 17.1%, '전업주부'가 14.6%로 우울의 경험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1$). 거주지역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가 17.0%로 우울의 경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서울시, 대도시, 중소도시 순으로 우울의 경험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4$).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아질수록 우울 경험이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1$).

3. 기혼여성의 우울감과 가족가치관 관련성

기혼여성의 우울 경험과 관련하여 가족가치관 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관련성이 확인된 가정 요인과 인구사회적 요인을 순차적으로 추가하여 통제된 상태에서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델 1은 가족가치관 요인인 가족주의적 결혼관, 개인주의적 결혼관, 전통적 부부역할관에 따른 기혼여성의 우울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족주의적 결혼관이 가장 강한 그룹에 비해 가장 약한 그룹의 교차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개인주의적 결혼관은 가장 강한 그룹에 비해 강한 그룹, 약한 그룹, 가장 약한 그룹이 교차비가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통적 부부역할관은 가장 강한 그룹에 비해 강한 그룹에서 약한 그룹으로 갈수록 교차비가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델 2는 모델 1에 가정 요인을 추가로 통제하여 기혼여성의 우울 경험과 관련된 가족가치관 요인의 영향력 변화를 살펴보았다. 가정 요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가족주의적 결혼관, 개인주의적 결혼관, 전통적 부부역할관은 여전히 우울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가족주의적 결혼관은 모델 1보다 모델 2에서 교차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우울 경험의 교차비는 모델 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가족주의적 결혼관의 강한 그룹과 약한 그룹의 교차비가 가장 강한 그룹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가족주의적 결혼관이 가장 약한 그룹의 교차비도 모델 1에 비해 그 값이 증가하였다. 개인주의적 결혼관은 준거집단인 가장 강한 그룹에 비해 가치관이 약해질수록 우울 경험의 교차비가 낮아졌다. 전통적 부부역할관은 준거집단인 가장 강한 그룹에 비해 나머지 세 그룹의 교차비가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델 3은 모델 2에 인구사회적 요인을 추가로 통제하여 기혼여성의 우울 경험과 관련된 가족가치관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가정 요인과 인구사회적 요인을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 가족주의적 결혼관, 개인주의적 결혼관, 전통적 부부역할관은 여전히 우울 경험과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	Category	Depression			p-value		
		All subjects	Yes (n=804)	No (n=5,014)			
Family value factors							
Family-oriented view of marriage	Very strong	1,180 (20.3)	133 (11.3)	1,047 (88.7)	< 0.001		
	Strong	587 (10.1)	79 (13.5)	508 (86.5)			
	Weak	2,110 (36.3)	259 (12.3)	1,851 (87.7)			
Individualistic view of marriage	Very weak	1,941 (33.4)	333 (17.2)	1,608 (82.8)	< 0.001		
	Very strong	991 (17.0)	193 (19.5)	798 (80.5)			
	Strong	1,757 (30.2)	229 (13.0)	1,528 (87.0)			
Traditional view of marital roles	Weak	1,294 (22.2)	159 (12.3)	1,135 (87.7)	0.098		
	Very weak	1,776 (30.5)	223 (12.6)	1,553 (87.4)			
	Very strong	512 (8.8)	89 (17.4)	423 (82.6)			
	Strong	998 (17.2)	135 (13.5)	863 (86.5)			
Family factors	Weak	1,919 (33.0)	252 (13.1)	1,667 (86.9)			
	Very weak	2,389 (41.0)	328 (13.7)	2,061 (86.3)			
	Household yearly income (10,000 Korean own)*	≤ 1,385	1,461 (25.1)	319 (21.8)		1,142 (78.2)	< 0.001
	1,385–2,000	1,339 (23.0)	209 (15.6)	1,130 (84.4)			
2,000–2,886	1,545 (26.6)	151 (9.8)	1,394 (90.2)				
≥ 2,886	1,473 (25.3)	125 (8.5)	1,348 (91.5)				
Housing tenure	One's own	4,387 (75.4)	597 (13.6)	3,790 (86.4)	0.154		
	Deposit	818 (14.1)	107 (13.1)	711 (86.9)			
No. of children	Monthly rent	613 (10.5)	100 (16.3)	513 (83.7)	< 0.001		
	None	934 (16.1)	176 (18.8)	758 (81.2)			
	≥ One preschooler	487 (8.4)	48 (9.9)	439 (90.1)			
	≥ One elementary, middle, highschool student	1,560 (26.8)	160 (10.3)	1,400 (89.7)			
Husband age (yr)	≥ One adult	1,754 (30.2)	273 (15.6)	1,481 (84.4)	< 0.001		
	Preschooler+elementary, middle, highschool student	563 (9.7)	71 (12.6)	492 (87.4)			
	Elementary, middle, highschool students+adult	520 (8.9)	76 (14.6)	444 (85.4)			
	≤ 30's	927 (15.9)	89 (9.6)	838 (90.4)			
Husband education	40's	1,928 (33.1)	205 (10.6)	1,723 (89.4)	< 0.001		
	50's	1,464 (25.2)	211 (14.4)	1,253 (85.6)			
	≥ 60's	1,499 (25.8)	299 (19.9)	1,200 (80.1)			
	≤ Middle school	1,315 (22.6)	268 (20.4)	1,047 (79.6)			
Husband occupation	Highschool	2,092 (36.0)	304 (14.5)	1,788 (85.5)	< 0.001		
	≥ College	2,411 (41.4)	232 (9.6)	2,179 (90.4)			
	No job	1,156 (19.9)	232 (20.1)	924 (79.9)			
Satisfaction with domestic division of labour	White collar jobs	1,600 (27.5)	138 (8.6)	1,462 (91.4)	< 0.001		
	Blue collar jobs,	694 (11.9)	75 (10.8)	619 (89.2)			
	Agriculture, fishing and forestry jobs	795 (13.7)	119 (15.0)	676 (85.0)			
	Simple labour	1,573 (27.0)	240 (15.3)	1,333 (84.7)			
Cause of conflicts	Satisfied	2,010 (34.6)	200 (10.0)	1,810 (90.0)	< 0.001		
	Neutral	2,436 (41.9)	303 (12.4)	2,133 (87.6)			
	Non-satisfied	1,372 (23.6)	301 (21.9)	1,071 (78.1)			
Socio-demographic factors	Never	4,551 (78.2)	484 (10.6)	4,067 (89.4)	< 0.001		
	Financial problem	400 (6.9)	130 (32.5)	270 (67.5)			
	Education	290 (5.0)	43 (14.8)	247 (85.2)			
	Relationship with parents	81 (1.4)	26 (32.1)	55 (67.9)			
	Work and personal life	455 (7.8)	114 (25.1)	341 (74.9)			
	Division of house labor	41 (0.7)	7 (17.1)	34 (82.9)			
Age (yr)	≤ 30's	1,427 (24.5)	149 (10.4)	1,278 (89.6)	< 0.001		
	40's	1,963 (33.7)	222 (11.3)	1,741 (88.7)			
	50's	1,406 (24.2)	211 (15.0)	1,195 (85.0)			
	≥ 60's	1,022 (17.6)	222 (21.7)	800 (78.3)			
Education	≤ Middle school	1,704 (29.3)	338 (19.8)	1,366 (80.2)	< 0.001		
	Highschool	3,986 (39.2)	290 (12.7)	1,992 (87.3)			
	≥ College	5,818 (31.5)	176 (9.6)	1,656 (90.4)			
Occupation	No job	2,723 (46.8)	397 (14.6)	2,326 (85.4)	< 0.001		
	White collar jobs	835 (14.4)	78 (9.3)	757 (90.7)			
	Blue collar jobs	1,003 (17.2)	136 (13.6)	867 (86.4)			
	Agriculture, fishing and forestry jobs	654 (11.2)	90 (13.8)	564 (86.2)			
Residential area	Simple labour	603 (10.4)	103 (17.1)	500 (82.9)	0.004		
	Seoul	548 (9.4)	84 (15.3)	464 (84.7)			
	Major city	1,924 (33.1)	260 (13.5)	1,664 (86.5)			
	Small/medium city	2,401 (41.3)	299 (12.5)	2,102 (87.5)			
Religion	Rural area	945 (16.2)	161 (17.0)	784 (83.0)	0.143		
	None	2,431 (41.8)	326 (13.4)	2,105 (86.6)			
	Protestantism	1,279 (22.0)	163 (12.7)	1,116 (87.3)			
	Catholicism	436 (7.5)	57 (13.1)	379 (86.9)			
Subjective health	(One) Buddhism	1,672 (28.7)	258 (15.4)	1,414 (84.6)	< 0.001		
	Good	3,096 (53.2)	260 (8.4)	2,836 (91.6)			
	Normal	1,968 (33.8)	267 (13.6)	1,701 (86.4)			
	Poor	754 (13.0)	277 (36.7)	477 (63.3)			

Table 3. Factors related to depressive mood: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Characteristic	Category	Model 1	Model 2	Model 3	
Family value factors	Family-oriented view of marriage	Very strong	1	1	1
		Strong	1.25 (0.93–1.69)	1.41* (1.03–1.93)	1.51* (1.09–2.10)
		Weak	1.14*** (0.91–1.43)	1.29* (1.01–1.63)	1.36* (1.06–1.74)
	Individualistic view of marriage	Very weak	1.62*** (1.29–2.02)	1.79*** (1.41–2.28)	1.98*** (1.53–2.55)
		Very strong	1	1	0.56*** (0.44–0.71)
		Strong	0.63*** (0.51–0.78)	0.56*** (0.45–0.71)	0.50*** (0.39–0.65)
	Traditional view of marital roles	Weak	0.62*** (0.49–0.78)	0.49*** (0.38–0.64)	0.43*** (0.33–0.55)
		Very weak	0.65*** (0.52–0.81)	0.46*** (0.36–0.58)	0.67* (0.48–0.93)
		Very strong	1	1	0.63** (0.46–0.85)
		Strong	0.71* (0.53–0.95)	0.71* (0.52–0.97)	0.68* (0.51–0.92)
		Weak	0.68** (0.52–0.89)	0.67** (0.50–0.89)	
		Very weak	0.68** (0.53–0.88)	0.71* (0.54–0.95)	
Family factors	Household yearly income (10,000 Korean won)*	≤ 1,385		1	1
		1,385–2,000		0.76* (0.61–0.95)	0.84 (0.67–1.05)
		2,000–2,886		0.50*** (0.40–0.64)	0.57*** (0.44–0.73)
		≥ 2,886		0.51*** (0.39–0.66)	0.60*** (0.45–0.79)
	Housing tenure	One's own		1	1
		Deposit		1.13 (0.88–1.44)	1.10 (0.86–1.42)
	No. of children	Monthly rent		1.09 (0.85–1.41)	1.06 (0.81–1.38)
		None		1	1
	Husband age (yr)	≥ One preschooler		1.15 (0.69–1.91)	1.33 (0.76–2.31)
		≥ One elementary, middle, highschool student		1.03 (0.71–1.49)	1.21 (0.81–1.82)
		≥ One adult		0.98 (0.77–1.24)	1.00 (0.78–1.29)
		Preschooler+elementary, middle, highschool student		1.25 (0.80–1.96)	1.58 (0.97–2.60)
		Elementary, middle, highschool students+adult		1.26 (0.87–1.83)	1.48 (0.98–2.24)
	Husband education	≤ 30's		1	1
		40's		1.30 (0.94–1.79)	1.34 (0.92–1.94)
		50's		2.09*** (1.39–3.15)	1.90* (1.16–3.12)
		≥ 60's		3.05*** (1.92–4.84)	1.90* (1.04–3.48)
	Husband occupation	≤ Middle school		1	1
		Highschool		0.78* (0.62–0.98)	0.96 (0.73–1.26)
	Satisfaction with domestic division of labour	≥ College		0.68** (0.52–0.90)	0.86 (0.60–1.22)
		No job		1	1
		White collar jobs		0.71* (0.54–0.94)	0.77 (0.58–1.03)
		Blue collar jobs		0.58*** (0.43–0.79)	0.62** (0.45–0.85)
	Cause of conflicts	Agriculture, fishing and forestry jobs		0.61*** (0.47–0.79)	0.76 (0.54–1.07)
		Simple labour		0.86 (0.69–1.08)	0.91 (0.72–1.15)
		Satisfied		1	1
	Socio-demographic factors	Neutral		1.12 (0.92–1.37)	1.11 (0.91–1.37)
Non-satisfied			1.81*** (1.47–2.24)	1.74*** (1.40–2.17)	
Never			1	1	
Financial problem			3.20*** (2.49–4.11)	3.24*** (2.49–4.21)	
Education			1.96*** (1.36–2.81)	2.24*** (1.55–3.25)	
Relationship with parents			4.15*** (2.51–6.88)	4.05*** (2.40–6.84)	
Work and personal life			2.50*** (1.95–3.20)	2.65*** (2.06–3.43)	
Division of house labor			1.53 (0.65–3.57)	1.74 (0.72–4.19)	
Age (yr)	≤ 30's			1	
	40's			0.87 (0.62–1.23)	
	50's			1.04 (0.63–1.70)	
Education	≥ 60's			1.24 (0.69–2.23)	
	≤ Middle school			1	
Occupation	Highschool			0.87 (0.64–1.17)	
	≥ College			0.92 (0.62–1.36)	
	No job			1	
Residential area	White collar jobs			1.06 (0.78–1.43)	
	Blue collar jobs			1.17 (0.92–1.43)	
	Agriculture, fishing and forestry jobs			0.64* (0.44–0.92)	
	Simple labour			1.15 (0.88–1.52)	
Religion	Seoul			1	
	Major city			1.02 (0.75–1.39)	
	Small/medium city			0.82 (0.61–1.12)	
Subjective health	Rural area			1.09 (0.76–1.56)	
	None			1	
	Protestantism			0.93 (0.74–1.17)	
C statistic	Catholicism			1.02 (0.73–1.42)	
	(One) Buddhism			1.02 (0.83–1.24)	
	Good			1	
	Normal			1.57*** (1.29–1.91)	
	Poor			5.97*** (4.70–7.59)	
		0.582	0.735	0.777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 $p < 0.05$. ** $p < 0.01$. *** $p < 0.001$.

관련된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족주의적 결혼관은 모델 2보다 모델 3에서 교차비가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전통적 부부역할관도 모델 2에서보다 모델 3에서 영향력이 증가하였다. 우울 경험의 교차비는 가족주의적 결혼관에서 가장 강한 그룹에 비해 강한 그룹에서 1.51 (95% CI, 1.09-2.01), 약한 그룹에서 1.36 (95% CI, 1.06-1.74), 가장 약한 그룹에서 1.98 (95% CI, 1.53-2.55)로 유의하게 높았다. 개인주의적 결혼관은 가장 강한 그룹에 비해 가치관이 약해질수록 우울 경험의 교차비가 낮아졌다(강함: OR, 0.56; 95% CI, 0.45-0.71; 약함: OR, 0.50; 95% CI, 0.39-0.65; 가장 약함: OR, 0.43; 95% CI, 0.33-0.55). 전통적 부부역할관은 가장 강한 그룹에 비해 우울 경험의 교차비가 강한 그룹이 0.67 (95% CI, 0.48-0.93), 약한 그룹이 0.63 (95% CI, 0.46-0.85), 가장 약한 그룹이 0.68 (95% CI, 0.51-0.9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 외에 1년간 가구총소득, 남편 연령, 남편 직종, 가사노동분담만족, 갈등상황원인, 기혼여성의 직종, 주관적 건강이 우울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고 찰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우울과 가족가치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가족가치관 요인, 가정 요인, 인구사회적 요인을 단계적으로 통제하여 가족가치관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가족가치관 요인인 가족주의적 결혼관, 개인주의적 결혼관, 전통적 부부역할관과 우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첫 연구이다. Logistic regression 분석결과, 가족가치관 요인은 가정 요인과 인구사회적 요인을 순차적으로 통제하였을 때, 기혼여성의 우울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었다. 기혼여성은 가족주의적 결혼관이 강할수록 우울 경험이 감소하고, 개인주의적 결혼관이 강할수록 우울 경험이 증가하였다. 즉 기혼여성은 결혼과 자녀, 이혼에 대한 포괄적인 가치관의 전통성이 약할수록 우울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자가 기혼여성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개인주의적 결혼관이 강한 응답자는 자신의 가치관이 기혼여성으로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울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통적 부부역할관은 그 성향이 강할수록 우울 경험이 증가하였다. 이를 결혼관과 같이 응답자가 처해 있는 현실과 연계해서 본다면, 전통적 부부역할관을 가진 기혼여성이지만 실제 가정과 사회에서 기대되는 바는 맞벌이 등 그와 반대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울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통제변수로 사용한 가정 요인과 인구사회적 요인으로는 1년간 가구총소득이 낮고, 남편 연령이 많으며, 가사노동분담에 불만족하고 갈등상황 중 특히 시부모, 친정부모와의 관계로 갈등을 겪으며, 주관적 건강이 나쁜 집단이 우울 경험이 높았다. 반대로, 남편의 직종이 서비스/판매 종사자거나, 여성

의 직종이 농림어업 종사자인 경우는 우울 경험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행연구에서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은 여러 가지 범주로 나뉘어 논의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결혼관, 성역할, 자녀, 남아선호, 부양, 효, 가족관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15].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가족가치관으로 사용된 요인을 이를 측정하는 문항특성을 반영하여 가족주의적 결혼관, 개인주의적 결혼관, 전통적 부부역할관으로 구분하였다.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우울의 관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제4차 여성가족패널(2012) 자료를 이용하여 기혼 직장임금근로자 1,480명을 대상으로 한 An 등[13]의 연구가 유일하다. 해당 연구는 여성의 우울을 포함한 정신건강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사회적 요인, 가정 요인, 직장 요인을 구분하여 직장여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족가치관 요인이 여성의 정신건강 수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적 가족가치관이 강할수록 여성의 정신건강 수준이 낮았다. 이는 가정 요인과 인구사회적 요인을 추가적으로 통제할수록 개인주의적 결혼관이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같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기혼여성의 결혼관이 가족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우울 경험이 감소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우울 경험이 증가하는 것은 연구대상자가 대부분 자녀가 있으며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기혼여성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주의적 결혼관이 강할수록 우울 경험이 감소하는 것은 여성이 가정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내와 어머니라는 역할이 결혼과 자녀를 중요시하는 가치관과 일치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아내와 어머니라는 역할보다 개인의 자아성취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여성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가치관이 대립되면서 우울을 더 경험하게 될 수 있다.

한편, 기혼여성의 결혼관은 전통적 성향이 약하고 개인주의가 강할수록 우울 경험이 증가하지만, 부부역할관은 전통적 성향이 강할수록 우울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에서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요소인 결혼관과 부부역할관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혼관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면서도 부부역할에 대한 가치관은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 부부역할관이 강한 기혼여성이 우울 경험이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치관의 변화가 가족의 영역에서는 느리게 나타나지만[26], 서구화, 산업화, 도시화의 결과로 양성평등의식이 그보다 빠르게 확산되고[27], 여성의 경제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환경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결혼과 가정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전통적 결혼과 자녀보유의 절대성이 중시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전통적 부부역할과 달리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면서 개인주의적 결혼관과 전통적 부부역할관의 성향이 높은 기혼여성은 내면의 가치관 충돌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도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요구되지만, 출산과 양육이라는 역할과 직장의 양립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는 상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치관은 개인이 신념을 가지고 선택하며 평가하는 바람직한 최종 상태로, 인간본성, 세계, 사회문화, 개인의 진로 및 직업, 가정생활, 대인관계 등의 각 영역에 대한 개인의 신념, 태도 및 판단 기준으로서 작용한다[28,29].

한국인의 가치관에 대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다. 1970년대 이후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간된 가치관 관련 연구는 총 23편이지만[28], 이 중 우울과 가치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없다. 그러나 주관적 인지요소 중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아존중감이 가치관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긍정적인 자기평가, 능력에 대한 개인의 기대를 포함한다[6]. 많은 선행연구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16-19].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가치관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일치하지 않거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충돌하여 내면의 갈등을 겪는 경우와 우울 경험은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국외에서는 가족 관련 가치관으로 대표적인 개념인 가족주의(familism)와 우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가 시행되어 왔다. 가족주의란 개인의 가족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가족구성원에 대한 강한 충성심과 결속력으로 정의된다[30]. 선행연구에서 가족주의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발달과 개인에게 정신질환이 발병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31]. 이러한 가족주의는 가족부양자 또는 가족 간병인의 우울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문화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문화에서는 환자 부양자의 부담과 스트레스가 높지만, 가족주의 가치관이 강한 문화에서는 그 정도가 낮다고 알려져 있다[32].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가족가치관은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태도이며, 신념 및 판단의 근거로서 행동의 기준을 제시하여 준다[33]. 가족은 개인을 둘러싼 일차적인 환경으로, 개인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여러 가치관 중 가장 기본적이다[15]. 한국은 부계가족 중심으로 개인이나 사회보다 가족을 우선시하고 남녀 간의 역할분리가 엄격한 전통적 가족가치관이 전해내려 왔다[34].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결혼의 지연, 동거, 이혼 증가 등으로 가족형태의 변화가 전통적인 가족형태에서 급속하게 변해 왔으며, 이에 따른 가족가치관의 변화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전근대적인 것에서부터 근대적인 것까지 혼재되어 있어, 이해갈등과 긴장이 잠재하고 있다[35].

본 연구의 장점은 기혼여성의 가족가치관과 우울의 관련성을 분

석한 첫 연구이며, 가정 요인, 인가사회적 요인을 보정한 상태에서 가족가치관 요인이 기혼여성 우울의 강력한 예측요인임을 확인한 데 있다. 여성의 스트레스 수준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기혼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가족가치관을 다룬 연구는 없었다.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여성의 삶의 1차적 환경인 가족에 대한 중요한 심리특성 요인이자 사회와 가족 구조를 연구하는 데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는 개념이다[36]. 이러한 가치관은 직장여성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의 우울과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가치관 변수를 연속형으로 처리하여 추가 분석한 결과에서도 모델 3의 경우 세 가지 가치관 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울감과의 관련성이 범주 간에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범주형 변수를 사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연속형 변수를 사용한 결과가 필요하신 분은 교신저자에게 연락주시면 송부해드릴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이 진행되었던 조사시점만의 우울을 파악했으며 장기간에 걸친 우울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관찰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시행한 연구로, 여성의 가족, 일, 일상생활 등, 3가지 주요영역을 조사하여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우울의 경우, 1차와 2차 자료에서는 측정하지 않았으며 3차와 4차에서 우울을 측정할 문항척도가 동일하지 않아 2012년의 4차 자료만을 이용하였다. 4차 자료만 활용함으로써 단면연구에 머물러 독립변수와 우울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우울 측정 문항이 포함되는 연구가 나오면 인과성을 고려한 보다 엄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CES-D10의 문항척도가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 것과 우울과 비우울을 가르는 절단점이 합의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우울 척도인 CES-D를 축약한 CES-D10을 사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에서의 CES-D10은 문항의 척도가 1점(매우 그렇다)부터 4점(전혀 그렇지 않다)으로, 타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된 문항척도인 1점(대부분 그랬다)에서 4점(극히 드물다) 척도와 방향성은 같으나 문항척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선행연구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CES-D10의 우울과 비우울의 절단점(cut-off point)이 21점에서 25점 사이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하나의 절단점으로 합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여성가족패널 설문구조는 직접적인 자녀의 유무를 묻지 않고, 가구에서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 아동이 있는지 질문 후에 그 아동과의 관계를 차례로 조사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녀가 아님에도 자녀가 있음으로 분석될 125명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가정 요인 독립변수(자녀 수, 갈등상황경험) 측정의 정확도를 위함이며, 가구에 미취학 아동, 초중고 학생이 있으나 그 관계가 어머니가 아닌 할머니나 친인척인 경우에는 제외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여성가족패널은 자녀의 연령을 조사하지 않고, 미취학 아동, 초중고 자녀, 미혼 성인자녀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의 우울을 파악하는 데 유아기 자녀 등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했다.

끝으로, 여성가족패널을 활용하여 가족 관련 가치관을 측정하는 선행연구는 연구목적에 따라 가치관 관련 문항을 선택적으로 일부 활용하거나 문항 모두를 활용함으로써 통일된 측정문항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13,37,38].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여성의 우울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여성가족패널에는 이를 측정하는 항목이 없었다. 또한 가족 관련 가치관과 우울의 관련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론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제한점이다. 개인의 심리특성인 가치관과 우울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밝혀진 만큼, 향후 연구도구가 충분히 마련되면 자아존중감과 가치관 그리고 우울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와 같은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가족가치관 요인에 따른 우울 경험의 차이를 확인하고, 여성의 우울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정 요인과 인구사회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상황에서 가족가치관 요인과 우울 경험의 강한 연관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ORCID

Sojin Park: <https://orcid.org/0000-0003-4515-9413>; Roelul Kim: <https://orcid.org/0000-0003-4663-4490>; Seungji Lim: <https://orcid.org/0000-0001-5954-9629>; Jiman Kim: <https://orcid.org/0000-0002-9929-5499>; Woojin Chung: <https://orcid.org/0000-0003-2090-4851>

REFERENCES

1.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ealth at a glance: OECD indicators.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5.
2. Korea Psychological Autopsy Center. Report of Korean psychological autopsy 2015.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3. Yang JK. The self-rating depression scale on psychiatric patient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1982;21(2):217-227.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epidemiological survey of mental disorders in Korea.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5. Park C, Lee J.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change of depression of Korean adult male and female. Health Soc Sci 2011;29(6):99-128.
6. Kang SI, Jeon HJ. Influence factors of married women's depression change: focused on householder and poverty. Health Med Sociol 2013; 33:161-188.

7. Ha EH, Oh KJ, Kim EJ. Depressive symptoms and family relationship of married women: focused on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dissatisfaction. Korean J Clin Psychol 1999;18(1):79-92.
8. Sim SM. The study of epidemiology of depression and treatment strategies for Korean married women's depression. Korean J Christ Couns 2005;10:53-88.
9. Jung SM. A study of the influence psychosocial factors on depression in married women [master's thesis]. Seongnam: Gachon University; 2015.
10. Lee SK. A study on relations between gender role attitudes, job satisfaction, and marital conflict, and work-family compatible conflict of married career women [master's thesis]. Gyeongsan: Daegu University; 2014.
11. Lee HJ, Seo EK, Jeong YR, Nam IS, Han SS. Effects of family support on depression among married working women. Korean J Health Serv Manag 2015;9(2):69-79. DOI: <https://doi.org/10.12811/kshsm.2015.9.2.069>
12. Jeong YR.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support and depression in Korean married women: the mediating effects of connubial bliss [master's thesis]. Gyeongsan: Daegu Hanny University; 2016.
13. An YS, Kim HJ, Lee HJ, Ha YJ. The factors influencing mental health of married career women: focusing on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home factors, office workers. J Humanit Soc Sci 2016;7(1):157-185. DOI: <https://doi.org/10.22143/hss21.7.1.9>.
14. Kim HD, Kim MH. The effect of confucian philosophy and gender egalitarian ideology on the work-family balance of married working women: husband & working conditions as partners. Women Stud 2011;81(2):33-67.
15. Kim YM, Han SH. The effect of family functioning and family values on life satisfaction among middle-aged men and women. CNU J Educ Stud 2014;35(2):79-100. DOI: <https://doi.org/10.18612/cnujes.2014.35.2.79>.
16. Kim MR.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women's life stress and depression tendency: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Korean J Health Psychol 2007;12(4):761-777. DOI: <https://doi.org/10.17315/kjhp.2007.12.4.006>.
17. Kim 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life event stress, self-esteem,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 comparison of working women and full housewives. Korean Educ Inq 2014;32(2):113-131.
18. Lee YJ, Kim J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among married women with young children: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stability. Korea J Couns 2012;13(5):2229-2249. DOI: <https://doi.org/10.15703/kjc.13.5.201210.2229>.
19. Han IY, Hong SH. Do gender role attitudes affect on depression? Korean J Woman Psychol 2011;16(4):477-498. DOI: <https://doi.org/10.18205/kpa.2011.16.4.004>.
20. Shaffer DR. Development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s. Belmont (MA): Wardsworth; 2002.
21. Kim EJ, Oh KJ, Ha EH. The vulnerability of married women on depression: focused on life stress and coping processes. Korean J Woman Psychol 1999;4(1):1-14.
22. Park JH, Cheong JH. The influence of depressio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 mediating effect of problem drinking. J Welf Aged 2010;47:309-329.
23. Lee MA. Relative effects of health and family factors on geriatric depression.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2011;22(4):623-635. DOI: <https://doi.org/10.7856/kjcls.2011.22.4.623>.
24. Shin SC, Kim MK, Yun KS, Kim JH, Lee MS, Moon SJ, et al.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its use in Korea.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1991;30(4):752-767.
25. Byeon H, Cho SH. Association between drinking behavior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Int J Bio-Sci Bio-Technol 2015;7(4):135-144. DOI: <https://doi.org/10.14257/ijbsbt.2015.7.4.14>.

26. Eun KS. Family values of Korean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Korean Stud Q* 2004;27(3):137-182.
27. Kim KW. Perception and values on family conception. *J Fam Cult* 1995; 7:213-255.
28. Na E, Cha Y. Trends of value changes in Korea: based on 1979, 1998, and 2010 survey data. *Korean J Soc Personal Psychol* 2010;24(4):63-92.
29. Newcomb TM, Turner RH, Converse PE. *Social psychology: the study of human interaction*. New York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0.
30. Brody E. Parent care as a normative family stress. *Gerontologist* 1985; 25(1):19-29. DOI: <https://doi.org/10.1093/geront/25.1.19>.
31. Neblett EW, Rivas-Drake D, Umana-Taylor AJ. The promise of racial and ethnic protective factors in promoting ethnic minority youth development. *Child Dev Perspect* 2012;6(3):295-303. DOI: <https://doi.org/10.1111/j.1750-8606.2012.00239.x>.
32. Youn G, Knight BG, Jeong HS, Benton D. Differences in familism values and caregiving outcomes among Korean, Korean American, and White American dementia caregivers. *Psychol Aging* 1999;14(3):355-364. DOI: <https://doi.org/10.1037//0882-7974.14.3.355>.
33. Kim YS. Explorative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o the Family Relationship of Married Woman. *Ewha Soc Work Res* 2002;2:97-124.
34. Ok SW, Chin MJ. Generational comparisons of family values and family life culture with respect to family rituals. *J Korean Home Econ Assoc* 2011;49(4):67-76. DOI: <https://doi.org/10.6115/khea.2011.49.4.067>.
35. Baek JH. The impact of demographic variables on family value orientations and gender role attitudes: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J Korean Home Manag Assoc* 2009;27(3):239-251.
36. Choi IY, Choi HK. Research on characteristics and typology of sense of value of Korean middle aged people. *J Fam Relat* 2009;14(1):81-109.
37. Bae GI, Kim KS. A study on the influence of family values and birth policy on the wanted fertility rate. *Korean J Soc Welf Stud* 2012;4(3):239-266. DOI: <https://doi.org/10.16999/kasws.2012.43.3.239>.
38. Jang H, Lee M.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married-working women's childbirth intention. *Fam Environ Res* 2013;51(4):425-438. DOI: <https://doi.org/10.6115/fer.2013.51.4.425>.